

딱딱한 통일 교육에 교양과 재미를!

<손안의 통일> 시즌 3 출간



2021 「손안의 통일」(11~15권)

11 생태의 시대와 DMZ

최재천 지음

12 미리 써본 북한 여행 기획서

고재열 지음

13 스크린으로 만나는 한반도

강성률 지음

14 DMZ를 보고합니다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외 지음

15 베를린에서 만난 서울과 평양

정진헌 지음

<통일 교육=고루하다>는 편견 이제 그만!

환경을 생각하는 평화, 2021 <손안의 통일>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맞춤형 통일 교육서 <손안의 통일> 시리즈가 시즌 3로 돌아왔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과 열린책들 출판사가 공동 기획·제작한 <손안의 통일>은 기존의 주입식 통일 교육을 탈피하고, 통일과 평화 문제를 독자 스스로 숙고하도록 이끄는 데 초점을 두고 기획된 문고 시리즈이다. <평화의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을 목표로 삼고, 평화가 왜 중요한지, 평화와 통일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독자 스스로 고민하는 힘을 길러 준다. 첫 권 『더 나은 통일을 위한 대화』(2019)를 시작으로 『분단을 건너는 아이들』(2019), 『그림으로 떠나는 금강산 여행』(2020) 등 매해 업그레이드된 소재와 참신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통일 교육=고루하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왔다.

이번 2021 <손안의 통일>(11~15권)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생태와 환경 문제를 어떻게 평화와 연결시킬지 고민한 기획들이 눈길을 끈다. <환경을 생각하는 평화>라는 관점에서 종이와 인쇄 모두 친환경 제작으로 제작했고, 생태 관련 주제를 2종이나 포함시켰다. 먼저 최재천 교수의 『생태의 시대와 DMZ』는 생태학자의 관점에서, DMZ를 어떻게 보존·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과 아이디어가 담겨 있고, 지역 생태 활동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한 『DMZ를 보고합니다』는 DMZ 일원의 경이로운 자연 환경을 꼼꼼히 조사하며, 인류의 자연유산 DMZ를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을지 성찰한다.

주제와 분야 면에서도 참신함이 빛난다. 전 신문기자 겸 여행감독 고재열은 『미리 써본 북한 여행 기획서』에서 북한을 뜻밖의 매력을 지닌 미지의 여행지로 소개하며, MZ 세대 독자들을 자연스럽게 평화라는 주제로 끌어들이는다. 영화비평가 강성률은 『스크린으로 만나는 한반도』에서 2000년대 이후 <분단 영화>를 분석하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대중 관객들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흥미롭게 해설한다. 또한 이주-난민을 주제로 연구해 온 정진현 교수는 『베를린에서 만나는 서울과 평양』에서 파독 간호사와 탈북 독일 유학생 등을 인터뷰하며 우리 안에 내재했던 <역사적·정서적 경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2021 <손안의 통일>은 디자인 면에서도 변화를 시도했다. 표지의 경우 각 권마다 본문에 사용된 도판을 활용했고, 색과 레이아웃을 달리하면서도 통일감을 전달하려고 했다. 퍼즐을 맞추듯 다양한 사각형을 겹치면서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다. 본문 편집 역시 각 도서의 주제에 따라 삽화의 느낌을 달리했고,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수록해 현장감을 더했다(『DMZ를 보고합니다』, 『베를린에서 만나는 서울과 평양』). 새로 바뀐 디자인 역시, 기존 통일 교재들의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벗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평화·통일 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온 <손안의 통일> 시리즈가 벌써 세 돌을 맞았다.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3년 동안 총 출간 종수는 15종에 이른다.

백준기 통일교육원장은 2021년 간행사를 통해, 보다 <완전한 평화>가 있어야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대한민국의 경제적·제도적 발전 미래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작은 책이 끊임없이 통일에 대해 일깨우고, 평화를 염원하며 창조적 미래를 꿈꾸게 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다. 이 시리즈가 시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되고, 일상 가까운 곳에서부터 평화의 감수성을 기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평화의 감수성이 널리 퍼지고 평화가 일상이 된 다음에는, 통일로 가는 길이 그리 멀지 않을지도 모른다.

시리즈 11~15권 소개



11권 생태의 시대와 DMZ

지은이: 구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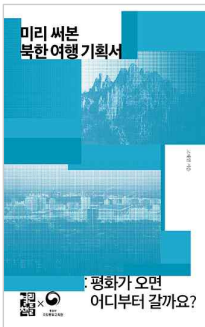
분 야: 인문/과학

형 태: 184면 / B6(120*188) 연장정

가 격: 10,000원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ISBN : 978-89-329-2195-2 04300 978-89-329-1996-6(세트)



12권 미리 써본 북한 여행 기획서

지은이: 고재열

분 야: 인문/여행

형 태: 224면 / B6(120*188) 연장정

가 격: 12,000원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ISBN : 978-89-329-2196-9 04300 978-89-329-1996-6(세트)



13권 스크린으로 만나는 한반도

지은이: 강성률

분 야: 인문/예술

형 태: 216면 / B6(120*188) 연장정

가 격: 12,000원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ISBN : 978-89-329-2197-6 04300 978-89-329-1996-6(세트)



14권 DMZ를 보고합니다

지은이: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외

분 야: 인문/지리

형 태: 224면 / B6(120*188) 연장정

가 격: 12,000원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ISBN : 978-89-329-2198-3 04300 978-89-329-1996-6(세트)



15권 베를린에서 만난 서울과 평양

역은이: 정진헌

분 야: 인문/역사

형 태: 232면 / B6(120*188) 연장정

가 격: 12,000원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ISBN : 978-89-329-2199-0 04300 978-89-329-1996-6(세트)

11권 생태의 시대와 DMZ

환경 위기의 시대, DMZ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까?

한국의 대표적인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가 오늘날 인류 문명이 마주한 환경 위기(기후 변화, 팬데믹, 생물 다양성 고갈)를 개괄하고, 생태적 관점에서 DMZ의 활용을 고민한다. 옛날 석기시대에는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려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살던 동굴이 더러워지면 다른 동굴로 옮겨 가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환경 파괴는 그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문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자는 평화·통일의 시대가 열리더라도 지금의 DMZ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의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공중 부양 생태 관광 도시>. 저자는 남북 육로의 길이 다시 연결되면 DMZ의 파괴가 확실시 된다면, 지상의 생태계는 야생 동·식물에게 양보하고 사람들은 공중으로 이동하는 <공중 부양 생태 관광 도시>를 제안한다(본문 153~155면 참조). 다른 하나는 DMZ를 훗날 북한에 심을 나무를 길러 내는 <양묘장>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북한의 산림은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훼손돼 이제는 백두산 일대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산이 민둥산이다. 저자는 생태계의 건강성과 안정성은 다양성에서 비롯된다고,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키워 북한의 민둥산에 옮겨 심자고 제안한다.

차례

<손안의 통일> 시리즈를 발간하며

프롤로그: 두 동굴 이야기

1장 기후 위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1 주요 환경 문제와 발생 원인

2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고갈

3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2장 코로나19 팬데믹과 생태학의 시대

- 1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재앙
- 2 숲으로 낸 길은 언제나 파멸에 이른다
- 3 기생생물의 생태와 진화
- 4 팬데믹과 생태학

3장 생명의 진화와 환경 파괴

- 1 생명의 본질
- 2 지나치게 성공한 동물의 생태학
- 3 저출산의 역설과 통일 한반도에 거는 기대

4장 DMZ와 한반도 생태

- 1 DMZ의 생태적 가치
- 2 DMZ의 경제적 가치
- 3 행복한 2등 국가 - 통일 한반도의 미래

에필로그: 두 반도 이야기- 잘린 반도와 끊긴 반도

참고문헌

지은이_ 최재천

평생 자연을 관찰해 온 생태학자. 서울대학교에서 동물학을 전공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생태학 석사 학위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시건 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와 생명다양성재단 대표를 맡고 있다. 하버드 재학 시절 세계적인 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의 제자였으며, 그의 책 『통섭』을 번역하여 국내외 학계에 이 개념을 널리 알리고 있다. 저서로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등이 있다.

12권 미리 써본 북한 여행 기획서

평화 시대를 상상하며 쓴 북한 여행 가이드북

언론인 출신의 작가이자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인 고재열이 평화 시대를 상상하며 쓴 북한 여행 기획서이다. 평양 맛집부터 마식령 스키 체험까지, 통일이 뭔가 부담스럽고 번잡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MZ 세대에게 미지의 여행지에 대한 힙한 여행법을 제안한다.

그동안 남북 교류가 간간이 있긴 했지만, 여행지로서 북한은 아직 미지의 장소였다. 저자는 일단 북한 관광지를 8개 구역으로 나누고, 남한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관광 콘셉트를 제안한다. 그가 제안하는 <신북녘 8경>은 다음과 같다. 서부 지방은 경의선 권역(신의주, 묘향산, 남포)과 평양 권역, 개성 권역(구월산, 사리원), 동해에 인접한 동부 지방은 칠보산 권역(청진시, 나진시), 원산 권역(함흥시), 금강산 권역, 중부 지방은 백두산 권역과 개마고원 권역. 북한 전 지역의 주요 관광 자원을 커버하면서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와 자연 명소, 숙소와 이동 수단까지 세심하게 안내하는 기획이다.

저자는 김정은 시대에 경제 제재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북한이 관광 개발에 힘써 왔지만, 남북이 단절된 상황에서 외국의 관광 아이디어와 자본주의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가장 자본주의화된 관광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이다. 저자는 북한 당국이 대규모 관광 단지 조성에만 힘을 쏟지 말고 <쿠바식 모델>에 따라 자신들의 문화적 자존감을 앞세운 관광 기획을 적극 개발할 것을 주문한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북한의 관광 자원의 현황을 보여 주는 동시에, 평화 시대가 열리면 가보고 싶은 북한을 상상해 보는 재미도 선사할 것이다.

차례

<손안의 통일> 시리즈를 발간하며

머리말

1장 여행 감독의 의무감으로 쓰다

- 1 <북한 여행 청서>를 써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 2 북한에서 경험하게 될 현대의 언어
- 3 북한 여행은 어떻게 가능한가
- 4 북한 여행의 재구성, <대동 여행 지도>를 그리다

2장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

- 1 북한에서 에어비앤비로 숙소 예약이 가능할까
- 2 100세 시대를 겨냥한 북한 온천 개발
- 3 쿠바 올드 카 관광 부럽지 않은 북한의 <올드 플레인> 관광
- 4 옥류관 말고 가봐야 할 평양의 10대 음식점
- 5 냉면 말고 꼭 먹어 봐야 할 북한의 10대 음식

3장 우리가 몰랐던 북한

- 1 중국 유커에게서 얻은 북한 여행의 힌트
- 2 북한에서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써본다면?
- 3 사회주의 천국이 아니라 아웃도어 천국으로!
- 4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섬과 바다

4장 북한 관광지 8대 권역

- 1 평양 권역: 평양 건축 관광부터 대성산까지
- 2 평안도 권역: 묘향산부터 신의주까지
- 3 황해도 권역: 개성시부터 경암산·경암루까지
- 4 백두산 권역: 백두산부터 양강도까지
- 5 개마고원 권역: 개마고원부터 삼수갑산까지
- 6 칠보산(청진시) 권역: 칠보산부터 나선특별시까지
- 7 원산 권역: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부터 함흥시까지
- 8 금강산 권역: 내금강부터 해금강까지

5장 세상에서 가장 힙한 여행지

- 1 우리의 손으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
- 2 프라다도 인정한 힙스터들의 도시, 평양
- 3 북한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여행, 업 트레블링
- 4 크루즈선으로 만끽하는 북한의 바다, 아직은 상상

참고문헌

지은이_고재열

어른의 여행클럽/트래블러스랩을 이끌고 있는 여행 감독. 고려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시사저널』과 『시사IN』에서 기자로 20년 동안 일했다. 현재 경기아트센터 이사와 서울시 공공 조경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여행과 여가의 미래를 상상하며 『생애. 전환. 학교』와 『축 2022-2023』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13권 스크린으로 만나는 한반도

우리 영화는 북한을 어떻게 그려 왔을까?

「뚝이 장군」부터 「강철비」까지, 영화 비평가 강성률 교수가 시대의 감성에 따라 변화해 온 우리의 분단 영화를 여섯 개의 주제로 이야기한다.

저자에 따르면 분단 영화는 반공 영화와 구분된다. 반공 영화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영화라면(「뚝이 장군」), 분단 영화는 분단의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국가가 개인에게 폭력을 가했는지, 그런 폭력과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을 묻는다. 저자는 분단 영화의 시점을 반공 이데올로기가 약해진 민주화 시기 이후로 본다. 이때부터 분단과 전쟁 속에 놓인 개인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개인을 둘러싼 폭력이 곧 분단국가 이데올로기와 얽혀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책은 「공동경비구역 JSA」, 「태극기 휘날리며」, 「모가디슈」 등 2000년대 이후의 분단 영화들을 시기순으로 묶어 텍스트로 삼았다. 독자들은 이 영화들 속에서 북한군을 묘사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왜 대부분의 영화에서 남한 사람은 형으로, 북한 사람은 동생으로 그려지는지, 왜 최근 북한 요원들은 대부분 꽃미남 배우가 도맡아 연기하는지 흥미로운 해석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차례

<손안의 통일> 시리즈를 발간하며

머리말

1장 분단의 냉혹함과 비극적 죽음

: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웰컴 투 동막골」

2장 생계형 간첩, 이념의 종말

: 「간첩 리철진」, 「그녀를 모르면 간첩」, 「스파이 파파」, 「간첩」

3장 남북 남녀의 비극적 사랑

: 「인살라」, 「이중간첩」, 「적과의 동침」, 「동창생」

4장 얼굴의 흉터와 비극의 시작

: 「태극기 휘날리며」, 「포화 속으로」, 「고지전」

5장 꽃미남으로 재현된 북한

: 「베를린」, 「은밀하게 위대하게」, 「용의자」, 「백두산」

6장 형제애, 한민족 메타포

: 「의형제」, 「공조」, 「강철비」

나가는 말

참고문헌

지은이

강성률

서울시립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영화학회와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이사, 대중상·백상예술대상·전주국제영화제 심사위원, 인천영상위원회와 아리랑씨네센터 자문 등을 지냈다. 2008년부터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에서 문화 이론과 비평, 한국 영화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계간 『영화가 있는 문학의 오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하길종, 혹은 행진했던 영화 바보』(2005), 『영화는 역사다』(2011), 『친일 영화의 해부학』(2012), 『은막에 새겨진 삶, 영화』(2014), 『한국의 영화감독 4인을 말하다』(2015), 『영화 비평: 이론과 실제』(2016), 『영화 색채 미학』(2017), 『한국영화에 재현된 가족 그리고 사회』(2018), 『상처의 응시』(2020) 등이 있다.

14권 DMZ를 보고합니다

역사, 지역, 생명의 눈으로 들여다본 DMZ

서해 백령도부터 동해 고성까지, 생태 활동가들이 기록한 DMZ의 현장 기록을 담은 책이다. DMZ는 역설의 땅이다. 한국 전쟁 휴전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남북의 대치와 대결의 현장으로 남아 있는 동시에, 전쟁 후 70년 가까이 사람의 출입이 극히 통제되면서 다양한 동식물이 나고 자라는 자연의 보고로 여겨진다. 지리적으로 북쪽의 추운 지역에 사는 식물과 남쪽의 따뜻한 곳에 사는 식물이 만나는 점이 지대(漸移地帶)에 위치한 덕분에 식물의 종 다양성이 매우 풍부하며(국내의 전체 식물종 총 4,596종 가운데 42.1퍼센트에 이

르는 1,935종이 살고 있다), 멸종 위기 야생생물종 중 42.7퍼센트가에 이르는 102종이 살고 있다. 이 책은 백령도, 강화도, 연천, 인제 등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생태 활동가들이 다수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한반도의 허리를 길게 두른 DMZ의 각 현장을 누비며, 동식물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한다. 한강 하구의 철새 숫자를 헤아리고, 갯벌 생명체의 종을 기록하고, 습지의 수량 변화와 서식하는 수종을 정리한다(이 책에는 필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도 다수 실려 있다). 이런 조사와 연구가 오늘날 DMZ 일원을 둘러싼 다양한 개발 압력에 맞서 환경을 보존해 나가는 토대가 된다.

차례

<손안의 통일> 시리즈를 발간하며

머리말

1장 DMZ의 지리와 생태계

1 DMZ의 지리

2 DMZ의 생태계

2장 DMZ 생태계 이야기

1 서해 연안: 백령도

2 서해 연안: 강화 갯벌

3 한강 하구: 평화와 생태가 만나는 현장

4 한강 하구: 물새의 생태 이야기

5 파주

6 연천

7 철원·화천·양구

8 인제

9 고성

3장 평화생명의 터전 DMZ

1 접경 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인제 서화 DMZ 평화생명 특구>

2 <인제 서화 DMZ 평화생명 특구>와 <남북 경제 특구>

3 한반도 생태·환경 협력

맺음말

저자 소개

지은이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DMZ 일원의 생태·문화·역사적 가치와 평화·생명·통일·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2009년 9월 강원도 인제에서 개관한 이후 1,800여 개 기관과 단체, 100여 개 나라에서 군인, 학생, 지역 주민, 공무원, 시민, 외국인 등 6만여 명이 다녀갔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DMZ 일원을 <좀 더 평화롭고 생명에 이로운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어 한반도를 넘어 전 지구촌이 <생명·평화 공동체>가 되는 날을 꿈꾼다.

김담

고성군 문화재단 이사. 강원도 고성에 거주하고 있다. 분단이 빚어낸 상처와 지역의 숲과 자연 생태 등을 탐구하며 지내고 있다. 지은 책으로 『숲의 인문학』, 『윈드 오브 체인지』, 『기울어진 식탁』 등이 있다.

김순래

강화도시민연대 생태보전위원장, 한국습지NGO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갯벌, 철새에 관심을 가지고 생태 환경 교육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습지보호구역 관리, 접경 지역의 남북 공동 보전 방법, 습지와 철새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김승호

DMZ 생태연구소 소장. 2004년부터 매주 1회 DMZ 일원의 생태 조사·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서부 DMZ 멸종 위기 동식물 보고서를 발간한다. 국무총리실 접경 지역 정책심의위원, 환경부 자문위원, NGO 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박정은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장. 2019년에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백령도로 이주하여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점박이물범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백승광

연천지질생태네트워크 활동가. 연천 DMZ 생태 보전 활동을 하고 있으며 DMZ 생태 해설사와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해설사, 문화재청 한문화재 지킴이(두루미 보전, 물거미 서식지 보전) 활동을 하고 있다.

송재진

생태평화한걸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한강 하구 민간인 출입통제구역 습지 조사 및 생태 교육을 통해 사람과 생물과 생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 1989년 접경 지역 야생 동물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천연기념물 사향노루와 반달가슴곰 조사·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종 복원 사업 복원팀장,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장으로 재직했다.

15권 베를린에서 만난 서울과 평양

독일의 베를린이 아닌, 우리들이 경험했던 베를린

아시아 냉전의 전선인 한반도와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독일에서 재독 동포들의 경험은 늘 독특하게 여겨진다. 1960년대 전후 국가 재건 시기에 고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 기꺼이 파독 광부, 간호사가 되어 이역만리 떠나왔다는 사연만으로도 그들의 삶은 주목을 받는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독일에 거주했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인계 교포들과 탈북 독일 유학생, 독일인 한국 유학생이다. 베를린을 배경으로 초국가적 삶을 경험했던 인물들이다. 저자는 <독일의 베를린이 아니라 한인들이 경험한 베를린을 통해 그동안 우리 안에 내재했던 역사적·정서적 경계를 해체하는 성찰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인식론적 변화를 <탈경계 감수성>이라 부를 것을 주문한다. 한편 저자는 (탈)분단 도시 베를린이 전시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독일의 분단과 통일 과정이 비단 그들만의 역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인 이주민들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이야기한다.

차례

<손안의 통일> 시리즈를 발간하며
서문

1장. 분단과 통일의 연대기

1. 이주와 정체성, 그리고 열망
2. 미래에 놓여진 <고향> 그리고 사회적 송금

2장. 마지막 파독 간호사와의 대화

1. 양호교사에서 파독 간호사로
2. 동베를린 방문
3. 베를린 시대 생활
4. 광주항쟁 소식
5. 마지막 소망

3장. 독일 청년이 바라본 한국의 분단과 통일

1. 독일 통일 베이비
2. 통일 독일과 비교해서 분단국 한국을 본다면?
3. 수도들이지만 다른 의미: 베를린과 서울, 평양
4. 독일과 한국의 MZ 세대
5. 휴전국 한국의 신기한 부동산
6. 패러다임의 전환을 바라며

4장. 북한 청년의 베를린과 서울살이

1. 북에서 남으로 오기까지
2. 한국에서의 10년
3. 베를린에서 독일 통일을 배우다
4. MZ 세대로서의 미래지향적 열망

5장. 베를린에서 만난 서울과 평양

1. 디아스포라의 미래지향적 열망
2. 베를린, 재독 한인 디아스포라의 경계 감수성
3. 엘리트 여성에서 노동자로의 자기 인식
4. 베를린-한국의 시공간적 이동
5. 결론을 대신하며: 베를린 거리의 서울, 그리고 평양

보론: 기억의 도시, 베를린

1. 손기정 선수가 태극기를 처음 본 베를린
2. <상처받은 용>의 집-윤이상하우스
3. 베를린 장벽에 새겨진 <조국은 하나다>
4. 베를린의 기억 문화 1: 전쟁과 학살의 참회록
5. 베를린의 기억 문화 2: 동서분단과 통일
6. 인간과 자연의 다양성 공동체: 베를린이 전하는 또 하나의 열망

참고문헌

지은이_정진현

지은이 정진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종교와 민족다양성 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이자 서울랩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며, 이주-난민과 종교, 도시의 열망 등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 사회통합연구 분과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립통일교육원에서 평화와 사회통합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 겸임교수,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 외래교수,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 공동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Migration and Religion in East Asia*(2015), *Building Noah' Ark for Migrants, Refugees, and Religious Communities*(공저, 2015), 『독일 한인이주여성의 초국적 삶과 정체성』(공저, 2021), 『통합, 그 이후를 생각하다』(공저, 2021), 『구술 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11: 독일편』(2021) 등이 있다.

■문의 및 자료 요청

인문팀 차장 김태권(T. 031-955-4041, M. 010-8864-0641, E. tack544@openbooks.co.kr)